

# 정신질환자의 억제 경험: 현상학적 연구

진주혜<sup>1</sup> · 유진희<sup>2</sup>

울산대학교 간호학과<sup>1</sup>, 인하대학교 간호학과<sup>2</sup>

## Psychiatric Patients' Experiences of Being Restrained: A Phenomenological Study

Jin, Juhye<sup>1</sup> · Yoo, Jin-Hee<sup>2</sup>

<sup>1</sup>Department of Nursing, University of Ulsan, Ulsan

<sup>2</sup>Department of Nursing,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meanings of Korean patients' experiences of being restrained in psychiatric ward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dividual interviews (N=6) and analyzed based on Merleau-Ponty's phenomenology. **Results:** Four bodily themes of being restrained were evident: wounded body after being shocked, dented body with scarred dignity, powerless body, and reflexive body dealing with the chaotic mind. Meaning dimensions such as time, space, language, emotions, and perception were also applied and explained by the bodily themes. **Conclusion:** Psychiatric patients' bodies, under physical restraint, were not silent and simply belonging to the situation, rather were embodied as a part of their existential worlds.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nurses can better hear and understand the bodily voices of being restrained when caring for patients in mental health settings.

**Key Words:** Physical restraint, Psychiatric nursing, Qualitative research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복도 한 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또 누군가 일을 저질러거죠. OO이가 소릴 막 지르며 팔, 다리를 휘둘르는데 뭐 소용 없죠. 결국 힘으로 눌러질 걸... 보호사가 팔을 OO이 등 뒤로 껴는데, 순간 저도 제 팔을 부여잡았네요. 어휴, 얼마 전 잡혔던 흔적이 아직 있더라고요. 씁쓸했어요 (무명씨).

억제는 환자의 신체 움직임을 제한하고자 시행되는 치료적 중재로 정신과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Colaizzi, 2005). 보통 정신과에서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환자로 인해 병동 내 질서가 파괴되고 주변 사람들이 해를 입을 수 있을 때, 또한 그러한 행동이 정신질환자 본인의 안 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억제를 적용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환자에게 억제를 적용하는 비율은 서구권 나라들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Jung et al., 2008).

**주요어:** 억제, 정신간호, 질적 연구, 메를로-퐁티

**Corresponding author:** Jin, Juhye

University of Ulsan, Department of Nursing, 93 Daehak-ro Nam-gu, Ulsan 680-749, Korea.

Tel: +82-52-259-1237, Fax: +82-52-259-1236, E-mail: jhjin@ulsan.ac.kr

- 이 논문은 2012년 울산대학교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2012 Research Fund of University of Ulsan.

투고일 2013년 12월 2일 / 수정일 2013년 12월 10일 / 게재확정일 2013년 12월 23일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정신질환자의 억제와 관련된 분야의 지식은 국내에서는 격리나 억제의 종류 및 빈도(Lee & Choi, 1982; Lee & Lee, 1981; Lee, Park, & Shin, 1991), 의료진의 억제에 대한 태도와 인식 등과 같은 객관적인 현실에 대한 양적 조사연구(Yoo, 2011), 억제를 경험한 환자 특유의 주관적 생각과 느낌에 대한 연구(Jung, 2011; Ko & Hah, 2012; Nam, 2002)가 있고, 국외에서는 그러한 정신질환자의 이야기 즉, 목소리를 통해 불거진 억제 적용의 찬반에 따른 이론적, 윤리적 쟁점이나 향후 억제 중재의 개선을 위한 교육 및 그 효과 평가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Johnson, 1998; Kontio et al., 2012; Kontio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첫 인용문의 진술에서 엿볼 수 있듯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억제라는 현상을 정신질환자 고유의 신체 경험에 중점을 두어 접근하고자 한다. 기존의 서술적 현상학을 통한 질적 연구가 억제 현상에 처한 자신의 몸을 정신질환자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인지한 것에 대한 이야기라면, Merleau-Ponty (1962)의 몸의 현상학을 통한 본 연구는 경험의 주체로서의 정신질환자의 몸이 어떻게 억제라는 현상에 관여되는지, 즉 체험적 몸(lived body)에 대한 실존철학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억제 현상을 몸의 현상학을 통해 탐색하는 것은, 첫째 억제는 환자 몸에 중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환자 몸의 경험에 의해 인지되는 현상이므로 몸의 현상학의 견지에서 정신질환자 억제 체험의 실존적 의미 탐색이 적절히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간호사는 억제 적용의 상황에서 환자의 몸에 직접 중재를 할 수도, 또 일상의 간호 활동을 통해 환자 몸의 경험에 대하여 가장 가까이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환자와 몸 대 몸으로 만나는 또 다른 몸을 가진 주체로서 간호의 돌봄의 역할에도 영향 받을 수 있다(Wilde, 1999).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억제는 신체적, 공간적, 화학적 억제의 통합적 맥락의 견지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Merleau-Ponty (1962)의 현상학에서 몸은 스스로 세계를 향해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세계에 속한 자신을 바라본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억제 체험 시 정신질환자는 그의 억제된 몸이 존재하는 병동에서 그 곳이 보호실이면 바로 그 안에 위치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약물이 투여된 그의 몸이 속한 신체적 억제 이후의 보호실 안에 고립되어 약물에 취한 자아를 함께 바라보게 된다. 이렇듯 신체적, 공간적, 화학적 억제 어느 하나만을 경험할 수도, 또 경험의 주체로서 하나의 영역만 말할 수도 없는 것이 임상 현실인 맥락에서 몸의 현상학을 통한 탐색은 전인적 접근으로서의 가치도 충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억제 적용을 경험했던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몸으로 인지하는 억제와 관련된 신체 경험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이는 질병과정 중 다양한 자아변화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정신질환자의 통합된 자아를 이루는 중요한 차원인 몸에 대해 보다 깊이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의 억제 경험의 본질을 탐색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표로 첫째, 정신질환자의 입원 중 억제와 관련된 생생한 몸의 경험을 조사한다. 둘째, 정신질환자에게 있어서 억제를 경험하는 몸의 실존적 의미를 파악한다.

## 3.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연구문제는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체험한 억제와 관련된 생생한 몸의 경험은 어떠한가? 그리고 억제를 체험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있어서 몸의 실존적 의미는 무엇인가?이다.

# 연구 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Merleau-Ponty (1962)의 몸의 현상학을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이다. 이 방법을 적용하게 된 철학적 배경은, 첫째 연구자가 인간의 몸과 마음은 따로 분리하여 바라볼 수 없다는 마음-신체 통합(mind-body unity)의 입장을 갖고 있고, 둘째 한 인간이 세계를 경험하며 표출하는 삶의 상당 부분이 바로 몸의 움직임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생각할 때 행위의 주체로서의 생생한 몸의 표현 언어를 주목하고 탐색하는 것이 간호학적 삶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방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 광역시의 대학병원 정신과에 등록된 환자로서 가족이나 친지의 요청에 의해 강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거나 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도중 공격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상황에 연루되어 억제 적용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성인으로서, 일차적으로 응급실이나 정신과 병동 간호사들의 추

천에 의해 억제 적용 이력이 있었던 대상자 예비 명단을 작성하였다. 이후 정신 임상전문간호사인 본 연구진 중 한 명이 예비 명단 상의 대상자 의무기록을 검토함으로써 억제를 경험했던 당시의 내용을 부분으로나마 기억하여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별하였고, 주치의에게 환자의 연구참여 가능성 여부에 대해 상의하였다. 최종적으로 대상자에게 연구개요 및 목적을 설명하여 참여를 원한다는 자발적 의사를 밝힌 최종 6명을 본 연구의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 3.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11년 10월부터 시작하여 2013년 2월까지의 기간 중에 시행되었다. 장소는 병원 내에 위치한 상담실이나 카페를 이용하였고 연구자가 직접 면대면(face-to-face)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모든 면담은 대상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은 후 녹음하였고 한 명당 대략 40분에서 70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 시기는 대상자의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이 예정되어 있거나 퇴원 후 첫 외래를 방문할 때였다. 면담 횟수는 각 대상자와 한번 씩 심층면담을 시행하였고 자료분석 상 필요로 되는 경우에만 연구자가 외래에 내원한 대상자를 만나 반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추가 응답을 얻었다. 본 연구에서 자료는 녹음된 면담 내용을 녹취한 자료, 면담 당시의 사실을 위주로 작성한 현장노트(field-note), 그리고 연구자의 철학적 성찰과 자료에 대한 해석을 포함하는 분석 메모(analytic memo)를 모두 포함하였다.

미리 작성된 면담가이드에 입각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병원에 강제적으로 이송될 당시나 병동에 입원하여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신체적 제재를 받았던 상황에 대해 기억해 봅시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황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의 주요 질문을 시작으로 억제와 관련된 잊을 수 없는 경험과 그 상황 속의 주요 인물들에 대한 구체적 설명, 억제 경험 당시 보호실과 같은 주변 환경에 대한 설명, 그리고 당시의 대상자의 느낌과 생각 등에 대해 개방형 질문으로 물었다. 대상자의 응답에서 내비치는 은유적 어휘나 고유한 언어 표현에 주의를 기울여서 의미의 본질을 더욱 깊게 탐색하고자 지속적으로 질문 내용을 보강하였다. 특히 “제압당한 본인의 몸에 대해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러한 억제 경험이 본인의 몸과 마음에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을 통해 억제 체험이 대상자의 몸과 마음에 미친 파급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게끔 하였다. 대답하는데 소극적인 경우에는 “억제 상황에 처한 다른 정신질환자에게 본인의 과

거 경험에 비추어 억제한 어떠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까?”라고 물어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 1) 연구대상자 보호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가 속한 대학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승인번호: IUH-IRB 10-2096). 모든 면담은 대상자와 사전 약속을 거쳐 이루어졌으며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에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에 대한 가족의 동의를 얻기를 원하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연구자가 직접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연구 진행 전반에 대해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가 등록된 병원의 간호사인 연구자는 접촉이 전혀 없었거나 드물었던 대상자를 위주로 면담을 시행하였고, 대상자와 안면이 있을 때에는 면담을 시행할 타 연구자를 소개하는 몇 분 동안만 면담 장소에 함께 하였다. 대상자와 만나게 되는 모든 상황에서 연구자는 병원 유니폼이 아닌 사복을 입었고, 대상자가 먼저 알아차려 묻지 않는 한 가능한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임을 알리지 않고 연구자로서의 중립적 정체성을 유지하려 노력하였다.

연구자는 또한 입원 직후보다는 정신 상태가 비교적 안정되었지만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기억하고 이야기함으로써 대상자가 힘들어 할 수 있음을 대비하였다. 면담 초기 대상자에게 모든 질문에 전부 대답할 필요는 없으며, 쉬고 싶거나 면담을 아예 중지하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면담 후 정신적으로 힘들어져서 추가 치료나 상담을 원할 경우에 원하는 전문가(예: 주치의, 정신전문간호사)에게 의뢰해 줄 것임을 알렸다. 면담을 중단했거나 전문가 상담을 원했던 경우는 없었으며, 오히려 답답했던 속이 후련해졌다고 표현하거나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서 고맙다고 하였다.

#### 2) 연구자 준비

질적 연구 수행을 위한 도구로서 연구자들은 박사학위 과정 중 질적 연구방법론 교과목을 수강하였고, 일련의 자료분석 모임을 통해 관련 문헌을 지속적으로 읽었으며, 기타 글쓰기 워크숍과 질적 연구방법론 관련 국내외 학회 및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 4. 자료분석

면담을 통해 마련된 음성 녹음은 연구자가 직접 필사하여 녹취록으로 준비하였다. 연구자는 항상 녹취록의 전체를 읽은 후 다시 녹취록 처음으로 돌아가 찬찬히 각 부분을 읽었다. 전체

적인 경험의 맥락을 염두하여 줄 간 분석(line-by-line analysis)을 하였으며 대상자가 표현하는 의미 있는 몸과 관련된 진술을 선택하고 분류하며 통합하였다. 또한 매 면담마다 연구자의 해석적 견해를 체계적으로 서술하는 분석 메모를 작성하였고, 줄 간 분석을 통해 대상자 진술의 내재된 의미를 파악하면서 얻게 되는 지시적이며 반복되는 진술 패턴을 주제로 만드는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을 실시하였다. Merleau-Ponty (1962)의 몸의 현상학에 의거하여 몸의 주제(bodily theme)를 관련 체화(embodiment) 개념에 적용하여 도출하였고 그에 따라 의미 진술을 적용, 해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총 세 차례의 분석 회의를 통해 녹취록, 현장노트, 분석 메모의 분석 자료를 함께 논의하여 최종 주요 주제들을 확정하였다.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들은 필요에 따라 대상자에게 되물어 의미에 대한 연구자 해석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다음은 본 연구자료분석의 철학적 근간이 되는 몸의 현상학과 체화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다.

### 1) Merleau-Ponty의 몸의 현상학

후설의 현상학 후기 사상을 계승한 후계자로서 Merleau-Ponty (1962)는 주저서인 ‘지각의 현상학’에서 “심장이 몸 안에 존재하는 것처럼 개인의 몸은 세계 속에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의 주요 관심인 몸은 단순히 객체로서 세계를 향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으로서 세계를 향해(심장이 몸의 기능을 유지하고자 뛰듯이) 지속적으로 행동하는 존재이고, 원초적 지각의 선험적 근거로서 나 자신과 몸은 서로 뗄 수 없는 공존하는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모든 사고 과정에 앞서 한 인간의 모든 경험에 지속되는 현존재로서의 몸은 영원히 나(자아)를 떠나지 않는 것인데, 그러한 나와 내가 속한 세계의 공간 어딘가에 위치하는 몸을 통해서만 비로소 의식 속의 나인 자아를 들여다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개인의 몸이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하느냐에 따라 그 몸이 속한 세계를 경험하는 것에 대한 의미 부여는 변화된다고 하였다.

### 2) 체화

Merleau-Ponty (1962)에게 있어서 인간의 ‘마음’은 항상 자신의 몸을 통해 구현되는 것으로 존재하는데, 이를 ‘체화’라고 일컫는다. 그는 인간은 체화 과정을 통하여 의식이 세계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신체에 속하게 된다(being in the world)고 설명하였다. 체화를 경험하는 몸은 인접한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는 능동적이며 지각적인 주체로서 세계를 향해 행동하고, 언어로서 표상되며, 결국 세계 속에

서 스스로를 향한 반성력(reflexivity)을 갖게 된다고 덧붙여 설명한다. 입원이라는 상황에서 환자가 경험하는 삶을 총체적 관점으로 보려면 신체 각 부분이 체험하며 인지하는 것, 즉 체화에 따른 환자의 존재적 실체도 포함시켜야 한다(Colaizzi, 2005). Merleau-Ponty (1962)는 체화를 설명하면서 특히 외부로부터의 주입을 통해 반복적인 행위를 경험하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일종의 몸의 도식을 형상화시켜, 결국 반복된 행위를 통해 굳어진 경험이 습관이 된다고 하였다.

요컨대 몸의 현상학과 체화 개념에 대입한 억제라는 현상은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속한 정신과 병동, 좁게는 보호실 안이라는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강력한 외부 자극이 되며 항상 일회성으로만 그치거나 잊혀지는 사건이 될 수 없다. 정신질환자 당사자의 몸에 직접적,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며, 다른 동료 환자의 억제 적용을 간접 체험함으로써 반복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자의 인지 구조에 충분히 이미 지화되어 각인되는 현상인 것이다. Merleau-Ponty (1962)가 말하는 체험적 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체화는 바로 몸을 매개로 한 의식의 경험으로서 정신질환자가 억제라는 상황에 처했을 때 몸과 의식의 실존적 실체에 대한 본질적 설명을 해 줄 것이다.

##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총 6명 중 남자가 4명이었으며, 연령은 19세 청년에서 46세 중년까지 분포하였다. 의학진단명은 크게 조현병, 양극성 장애, 그리고 정신병적 장애 세 부류였다. 정신질환 진단 후 경과된 시간을 보면 1년 미만인 경우가 두 명 있었는데 이 둘 모두 현재 입원이 처음이었다. 입원 횟수는 최대 4회였으며, 입원 기간 동안 억제 적용을 경험한 횟수로 의무기록 상에 표시된 정보는 최소 1회에서 8회까지였다.

### 2. 몸 주제별 결과

본격적인 주제 분석의 결과, 억제를 체험한 몸에 관련되어 4개의 주제, 8개의 하위 주제, 그리고 66개의 의미 있는 진술이 탐색되었다. 몸 주제는 각각 ‘충격으로 상처 입은 몸’, ‘자신의 존엄성에 대한 상처로 일그러진 몸’, ‘무력한 몸’, 그리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스리는 성찰의 몸’이었으며, 시공간적,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ID of participants	Gender	Age (year)	Medical diagnosis	YD Year (month)	FH	FR
P1	M	19	Schizophrenia	2	4	8
P2	M	27	Bipolar disorder	7	2	1
P3	M	25	Bipolar disorder	< 1 (6)	1	3
P4	F	46	Schizophrenia	15	3	2
P5	F	38	Schizophrenia	5	2	1
P6	M	19	Psychotic disorder	< 1 (5)	1	4

YD=years since diagnosis; FH=frequency of hospitalization; FR=frequency of being restrained.

언어적, 감정적, 인지적이라는 실존 차원의 속성을 지녔다 (Table 2). 몸 주제를 개괄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후 구체적인 진술의 예와 해석을 주제별로 제시한다.

대상자는 입원 중 억제 체험에 대하여 충격과 무서움으로 받아들이며 제압된 결과 몸에 남은 상처에 대한 아픈 기억을 회상하였다. 정신과 병동 내 의료진과 보호사, 그리고 독방인 보호실 환경을 외부 세계로 인지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저항할 수 없는 무력해진 몸의 한계를 토로하고, 자신의 몸이 비인간적인 취급을 당하는 것에 대한 불쾌함과 억울함을 표현하였다. 하지만 홀로 남겨진 폐쇄 공간의 적막 속에서 울부짖음은 부질없다는 것을 차츰 깨닫게 되고, 억제를 해제시켜 주는 것을 포기하게 되면서 오히려 몸이 편안해졌다고 느끼고 마음 속의 복잡한 생각들을 다잡는 기회를 가지기도 하였다. 그 경우, 물리적 억제로 비롯된 대상자의 몸의 억눌림은 혼란한 마음을 정리하고 자아를 반성하는 몸의 경험으로 이어졌다.

### 1) 충격으로 상처 입은 몸

첫 번째 주제인 상처 입은 몸은 대상자의 억제 체험 상황의 시공간에서 두드러지게 자각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상자는 특히 당시 경험에 대한 기억의 단절과 시간 개념 망각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다른 사람들과 철저히 분리되어 폐쇄된 보호실이라는 공간에 홀로 남겨짐으로써 고독과 싸우며 길들여지는 무서움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억제로 인해 몸에 남은 흔적이거나 상처는 기억이 단절된 시간 동안에는 잊혀 졌다가 잠에서 깨어 혼자 남게 된 보호실이라는 두려운 공간을 확인한 후에 더욱 서럽게 어루만졌다. 또한 억제로 인해 초래된 몸의 상처는 억제 상황이 해제된 이후 대상자의 기억 속에서 종종 떠오르는 억울함의 흔적으로 남았다.

여기 봐봐요. 멍든 거. 내가 비틀어서 뺄려고 그래서 그

럴 수도 있지만, 아파요. 화가 나고, 억울하고(멍든 부위를 쳐다보며)... (멍든 걸 볼 때마다) 그 충격적인 기억은 잊혀지지 않아요. 내가 뭘 할 수가 있었겠어요.(P5)

#### (1) 답답한 기억, 단절된 시간 속에 갇힘

물리적 억제와 함께 투여된 약물은 과도한 진정 작용과 수면을 유도하여 결국 대상자 기억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억제 경험을 둘러싼 경위에 대한 회상은 부분적인 경우가 많았다. 뚜렷하지 않은 기억은 또한 대상자의 마음의 답답함을 더욱 가중시켰다.

A4로 그(보호실 출입문) 창문을 이렇게 가리고 있었고... 불빛이 시간, 시계가 없잖아요... 이게 시간이 얼마나... 다음 번엔 시간이 얼마나, 근데 제가 알기로 한 3, 4일? 대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고요. 저는 3일은 지났는데 줄 알았는데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중요한 거는 너무 무서웠는데 기억이 잘 안나요 참...(P6)

(뭐가 어찌된 건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답답해서 도망가자... 이거는 뭐... 저는 이런 공간에서 건물에서 이렇게 오래 있다는 거는 말이 안돼요.(P2)

#### (2) 무서운 공간 속에서 길들여짐

진정 후 깨어난 상태에서 공격적인 행위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는 기억할 수 없는 일정 시간과 공간에 홀로 남겨졌다. 자신의 존재를 공간 밖을 향해 표현하고자 고군분투하였으나 점차 그 공간의 경계를 동물의 우리처럼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마치 처신을 암전히 해야 하는 동물이 자신인양 받아들였다.

제가 소리를 막 지르다가요. 성대가 아파요. 그럼 또 자

**Table 2.** Themes of Being Restrained

Bodily themes	Sub-themes	Existential dimensions
Wounded body after being shocked	Broken time-flow with memories on being stifled Being trapped in a scary place and becoming tamed	Time Space
Dented body with scarred dignity	Feeling like "being crucified" Being treated like 'luggage' Feeling 'dented' 'A rod of love'	Language
Powerless body	Ambivalent emotions: Feeling upset but surrendering to the powerlessness	Emotions
Reflexive body dealing with the chaotic mind	Opportunities for repentance by controlling scattered thoughts	Perception

요. 바로, 그 바로 자요. 특이한 거는 뭔진 몰라도 바로 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일어나요. 그 다음에 또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게, 제 자신을 표현할 수 없달까?(P6)

(보호실은) 엄청 무섭고 위험한 곳이에요. 사람이 죽어도 모르는 공간... 참 충격적인 곳이죠.(P2)

그냥 집어넣고는 계속 쉬라고만 해요. 묶여있을 때는 사육 당하는 느낌이라고 할까? 네 그러니까 자꾸 길들인다, 버릇 길들인다 그런 느낌이 확 드니까 기분이 좀 싫더라고요. 좀 사람 같지 않은 대접을 받는다?(P3)

## 2) 자신의 존엄성에 대한 상처로 일그러진 몸

두 번째 몸 주제는 일그러진 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힘, 짐짝 취급, 사랑의 매, 찌그러진 몸 등 대상자 자신의 몸 가치가 폄하된 불쾌감이 투영된 언어로 표현되었다.

### (1) 십자가에 못 박힌 듯 여겨짐

사지를 침대에 묶은 형태의 억제 적용은 포승줄, 밧줄, 십자가, 손과 발의 상처 등의 특정 단어로 이미지화되었다.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힘에 대한 비유는 단순히 억제를 당하는 몸의 모양새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벌의 개념으로까지 연결되어 해석되었다. 억제된 상태에서 몸부림을 칠 때 마다 양 손, 양 발의 묶인 부위의 마찰로 인한 아픔은 이미 아픈 상처가 덧대어 문질러지는 잇을 수 없는 고통으로 표현되었다.

그냥 일단 묶인 거 자체만 생각나고... 이제 뭐 이대로 죽는가보다 라는 생각이 들고...(P4)

마치 내가 십자가에 매달린 것 같았어요. 양 손과 양 발이 위에, 아래로 이렇게 뻗치고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도 없고...(P5)

(묶인 손과 발이) 상처를 문지르는 기분이었어요. 그 기억이 잊혀 지지 않을 것 같아요.(P6)

### (2) 사람이 아닌 듯이 취급당함

짐을 옮기듯 몸을 끌고 가는 것, 실험실 동물에의 비유는 비인간적 처우에 대한 기분 나쁘고 억울한 감정에 섞여 표출되었다.

뒗뒗미를 잡은 다음에 보호사형이 저를 질질 끌고 가가지고.....(P1)

사지를 결박당한다는 거 자체가요. 사육, 그러니까 동물 취급받는다는 뭐... 실험용 뭐 그 원숭이나 뭐 쥐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다는...(P3)

포승줄로 묶어서... 여기는 다짜고짜 일단 묶고, 그 다음에 안정제를 놓아요. 정신과 환자라서 막 대하는 건지...(P5)

### (3) 일그러지는 느낌

억제 경험은 신체에 압력을 가해 누르는 것으로 주로 찌그러짐, 일그러짐, 짓누름, 꺾음, 힘을 가함 등의 어휘로 표현되었는데, 물리적 힘과 압박으로 인한 기분 나쁜 몸의 경험은 본 연구의 대상자에게 있어서 마음이 눌러 일그러지는 경험으로 연결되었다.

나의 근육이 찌그러지고 있구나. 자꾸 제압당하니까

기분이 더 나빠요. 억지로 꺾고, 적정 힘보다, 필요한 힘보다 더 과하게 힘을 쥐서 막 그러면 기분이 심히 나빠요.(P1)

강제로 뒤집어서 주사 놓고... 위에 올라타서 막 누르고...(마음까지) 억눌리는 느낌이에요.(P5)

#### (4) 사랑의 때로 받아들임

매를 맞는다는 것은 신체에 가해진 물리적 손상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였지만, 억제를 가한 보호사에 대하여 본 연구의 대상자들 일부는 병동 내 치료적 역할로 인해 자신에게 억제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었음을 수긍하며 억제를 마치 잘되라는 체쩍질의 의미로 표현하였다. 이는 특히 대상자가 남자이며, 억제 적용을 여러 번 경험했을 때, 또한 평상시 병동 내에서 보호사와 비교적 원만히 의사소통하며 관계를 맺은 경우에 언급되었다.

보호사 형이랑 나중에 대화해보니까(그 형도) 어쩔 수 없단 것도 알게 되니까요. 뭐 그 당시에는 또 지극히 미처서 막 이렇게 광(미친)... 그것도 뭐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요. 알 것 같아요.(P3)

억제하는 거요. 필요하게 되는 환자한테 이유를 말해주면 괜찮고요. 끝나고 나니깐요. 그냥 그 사랑의 때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P6)

### 3) 무력한 몸

화가 나고 억울했던 부정적 감정은 격리되고 억제된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자포자기하게 됨으로써 무력한 존재로서의 자아를 발견하게 하였다. 하지만 무력한 자신을 인정하게 되면서 유순해진 감정은 어찌 보면 부정적인 감정이 팽배했던 것과는 반대의 안정감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세 번째 몸 주제인 무력한 몸은 이러한 다양한 감정들의 대립 속에서 초래된 것으로 해석되었다.

#### (1) 저항했지만 무력한 나를 인정하게 됨

억제 경험과 관련된 부정적 감정인 짜증남, 화, 분노, 열받은 점은 점차 억제 적용이 불가피했던 경험이었음을 알고 포기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이해함과 누그러짐, 완화됨의 반대 감정과 함께 대립하여 고분고분히 행동하는 양상으로 변모하였다.

짜증나서 풀려고 했었어요. 막 움직이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너무 꽉 묶어 놔서... 몇 번을 풀려고 노력했는데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뭐 포기한... 아! 어쩔 수 없구나... 못 나가고... 더 이상 반항하는 거는 좀 그렇겠다...(P1)

(병동에서 난리 쳐서 억제 당하는 다른 환자들을 보면) 음... 한편으론 나도 그랬으니까 당연하다 생각해요. 일단은... 근데 그게(환자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거 없죠. 저도 알아요. 피할 수 없는 거란 걸...(P2)

이렇게 포박당하니까 또 열받더라구요. 근데 두 번 당하고 나니까 아 이거는 어쩔 수 없더라구요. 우선 제 상황이 파악되더라구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여기서 빨리 왜 들어왔는지 알려면 제가 좀 누그러 지내는 것 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았어요...(P3)

... 그냥 밀폐된 공간 안에서요. 이렇게 팔 이렇게 묶인 옷이랑, 다음에 입에, 아! 양들의 침묵이다... 두 명이 달려드니까 아 좀 버겁더라구요. 제가 이길 방도는 없더라고요. 아이쿠 그러 그냥 그렇게(제 몸을)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자포자기 심정이에요. 아무리 그거는 힘을 키워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니까요.(P3)

### 4)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스리는 성찰의 몸

마지막 네 번째 몸 주제인 성찰의 몸에서는 몸의 움직임을 통한 저항은 자체하면서 머릿속에 산재된 생각들을 정리하게 됨으로써 억제 경험의 수궁이라는 인지적 차원에서의 몸의 지향성이 표출되었다.

#### (1) 흐트러진 생각들을 정리하며 편안해진 나를 봄

마냥 저항을 할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 대상자는 물리적으로 억제되고, 공간적으로 격리된 상황에서 몸은 그대로 둔 채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는 기회를 가졌다. 무엇이 잘못된 행동이었는지 자신의 공격이었던 행위에 대해 곱씹어보는 기회를 통해 더욱 안정되고 편안함을 느끼기까지 했다고 표현하였다. 대상자 몇몇이 언급하였듯이, 이는 어느 정도 진정제 투여로 인한 화학적 억제의 효과가 맞물려 경험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신체 묶임과 공간에의 속박을 벗어나 억제 해제의 보호실 문 밖의 세계를 향한 대상자의 반성하는 몸으로서의 의지적 적응의 표현임을 또한 간과할 수 없었다.

(묶인 채 가만히 누워) 뭔가 이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구나 보다 라는 생각을 좀 했죠(P4)

그만큼(억제를 당한 만큼) 제가 잘못을 했다는... 내 문제를 고치지 못했으니까. 그만큼 당하는 거니까 제지 당할 일을 했다는.....음... 그니까 생각할 수 있게... 저의

그 나쁜 행동을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P1)

조용조용하게 물어보니까 역시(보호사가)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약간 날라 갔던 사이 기억들이 좀 맞춰지고...(P3)

생각보다 그게 이제, 그 때 주는 주사인지는 뭔지는 몰라도 약인진 몰라도 마음은 정말로 그랬어요. 안정이 되어 편안함을 느껴요...(중략) 그 상황은 싫었고 기분은 나빴고 불편했지만 나쁜 행동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 기간 안에 감정이 있고, 그 기간 후에 있는 감정이 있고, 후에 있는 감정은 긍정적이었어요. 배우고... 위험한 행동에 대해 잘못을 인정할 기회를 주어 좋다고 생각했어요.(P6)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정신질환자의 상처입고, 일그러진, 무력한 몸은 충격적의 체험으로 다가온 억제 당시의 시간과 간헐있었던 공간에서 자신만의 특유의 언어를 통해 표현되었으며 복잡한 감정 속에서 특히 더 존재의 무가치함을 경험하였다. 그렇지만 억제 체험을 수동적이고,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기보다는 인지적으로 성찰하며 자신의 몸이 위치한 세계를 향해 적극적으로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였다.

## 논 의

본 연구는 단순히 물리적 대상으로 몸을 바라보지 않고, 현상의 세계 속에서 드러나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Merleau-Ponty (1962)의 몸의 현상학을 통해 입원한 정신질환자의 억제 경험의 철학적 의미를 탐색하였다. 아픈 사람의 이야기는 그 사람의 몸에서부터 표출되고 시작된다고 하였듯이(Frank, 1995), 억제를 경험하는 몸과 관련되어 표현되는 정신질환자의 다양한 의식화된 언어를 확인하였고 환자의 몸은 곧 정신을 주관하는 주체로서 몸의 경험은 지각과 함께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탐색된 각각의 몸 주제를 구체적으로 논하면 다음과 같다.

억제를 경험한 정신질환자의 상처 입은 몸은 단순히 신체 부위의 손상 또는 통증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는 그 이상의 정신질환자가 위치하는 세계에서 생생히 지각된 몸의 구체화된 결과였다. 이는 진술 문장 텍스트에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자료수집 시 면담 과정 중에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그 때 당시 묶인 신체 부위를 손으로 지시하거나 만지면서 회고한 체화된 정보로도 드러났다. 억제로 인해 생긴 명은 정신질환자에게 있어서 억제 체험을 했던

당시의 공간으로 인도하는, 다시 말해서 그 세계에 여전히 존재함을 연결시켜 주는 계기 그 자체였다. 중환자실 환자의 몸의 내러티브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체화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의식을 되찾은 후 중환자실에서 발견한 자신의 몸에 부착된 기구들과 각종 감시 장치들, 움직임의 불편함과 기계호흡기 적용의 답답함 등은 중환자가 직접 몸으로 느끼는 상처이자 중환자임을 더욱 몸서리치게 하는 몸의 흔적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Kong, 2010).

일그러지고 억눌려진 형상의 몸에 대한 다양한 언어적 표현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결여된 상태의 억제된 몸의 이미지로 언급되었는데, 타 연구들에서의 유사 표현으로는 동물이나 짐승 취급, 죄수 같음, 질질 끌려가는 노예, 매 맞는 것 같은 느낌 등이 있었다(Jung, 2011; Ko & Hah, 2012; Nam, 2002). 억제에서 사용된 물리적 힘은 처음에는 신체에 대한 놀림으로 표현되었지만 추후 억제 적용이 지속되거나 경험이 습관화되는 경우 마음의 억압으로도 연결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한 가지 차별되는 점은 ‘매’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은 긍정적 인 측면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환자의 몸과 연결되는 세계의 일부인 보호사에 대한 지각과 의식의 변화로 초래되었다. 따라서 정신질환자가 인간적이지 못한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언급할 때에는 억제를 적용하기 전과 적용한 이후의 권위로 상징되는 치료진, 특히 보호사의 평상시 환자와의 관계의 질이 어떠했는지 성찰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는 Ko와 Hah (2012)의 연구에서 억제 경험 유형으로서 조사된 이성적 반응-신뢰형에 대입시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신뢰와 긍정적 수용은 억제를 당한다고 생각할지언정 치료진을 도움을 주는 존재로서 인식하고 결정을 따르는 경우에 생긴다고 볼 수 있다.

Merleau-Ponty (1962)는 몸은 상황적 공간을 갖는데 바로 몸 안은 체험의 장이 될 수 있으며 그 안의 깊이는 개인마다 다르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도 충격과 무서움이 스며든 몸, 또 반성과 성찰의 생각을 채우는 몸 등의 다른 깊이를 지닌 몸이 확인되었다. 또한 Merleau-Ponty (1962)는 몸에서 처음 대략 알아차리게 되는 느낌으로서 실천지(praktognosis)를, 그리고 어떻게 되어가는 상황인지 분석하고 추리를 하게 됨으로써 몸 도식(schema corporel)이 수반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몸에 의한 앎’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바로 무력한 몸이 실천지가 되어 시발점으로 작용하였고, 정신질환자에게 있어 억제 적용이 일어나는 세계가 구조화되었다. 보호실 안에서 무력한 존재임을 지각하고, 본인의 묶여진 몸의 모양새를 절감하면서 더욱 아무 것도 할 수 없

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진정 상태에서 갇힌 후에는 상황에 대한 알아차림과 함께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과 행동을 조율하는 과정을 겪었는데, 이는 몸이 세계와 하나가 되기 위해 적응하는 과정으로서 그 세계의 일정 형태를 받아들여 자신의 자아형상에 구조화시켰다. 예를 들어, 가만히 몸을 둥으로써 더욱 생각이 차분해지는 긍정적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억제 해제에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몸을 침대에 누워 차분히 있게 되는 것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또한 결국 그렇게 몸을 위치시키는 것이 잘된 행동임을 지각하게 되었다. 특히 억제 적용이 처음이 아닌 경우 이러한 구조화가 과거의 경험에 따라 습관화되었다.

Merleau-Ponty (1962)는 ‘마음’은 세계를 향하여 몸을 통해 구현된 것(embodied)으로 존재한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억제를 체험한 정신질환자의 세계는 공격적 행동을 보인 곳, 끌려가서 제압당한 침대나 보호실 독방, 그리고 결국 다시 돌아가게 될 병동인 보호실 밖의 공간으로서 그 세계를 향한 다양한 마음이 몸으로 표현되었다. 공격적으로 팔, 다리를 휘저으며 부당한 대우에 대한 분노와 저항감을, 홀로 남겨져 있는 고립된 몸으로 혼자 남겨진 외로움을, 묶인 손과 발로 움짱달짝 할 수 없었음을 통해 그의 마음도 이 생각 저 생각하지 않고 가만히 묶어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갇힌 보호실 밖으로부터 누군가 와서 꺼내주길 바라며 출입문에 난 창을 바라보는 몸은 자유를 향한 갈망을 표현하였다. 억제 체험 속의 정신질환자의 마음은 이렇듯 멍들고 훼손된 몸을 통하여 말해졌고 그의 의식은 몸과 세계 속에 체화되어 스며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Merleau-Ponty (1962)가 몸을 매개로 한 체화가 한 인간이 지각, 즉 알아차림을 통해 외부 세계와 관계 맺는 전제조건이 된다고 했듯이, 억제를 체험하는 몸은 정신질환자가 자신이 존재하는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는 지각의 주체였음을 보여준다. 특히 억제 적용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정신질환자의 성찰의 몸은 점차 바깥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 파악하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통제감을 되찾아 규정화된 질서의 외부 세계에 협조하고 융합해 나가겠다는 능동적 주체로서의 반성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Benner와 Wrubel (1989)이 언급한 몸의 존재론적 능력의 형태로 ‘습관적이고 숙련된 신체(habitual, skilled body)’이자 ‘투사된 신체(projected body)’였다. 즉, 과거의 억제 적용 경험과 비교하여 저항하는 행위의 방식을 점검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보호실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외부 세계와의 교섭에 실패했을 때에는 신체 움직임으로 저항하기 보다는 가만히 있는 선택으로 수정함으로써 새로운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몸으로 변화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체험을 통한 습관은 억제된 몸을 통해 얻어진 특정 지식으로서 정신질환자가 처한 억제라는 구체적 상황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몸의 주체적, 실존적 능력으로 해석되었다.

본 연구는 억제 경험을 하는 정신질환자의 몸은 곧 그가 자신의 세계 속 실존적 위기에 대처하는 마음(정신)과 상통함을 철학적, 해석학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모집의 어려움으로 인한 적은 연구대상자 수, 그리고 여성 대상자에 비해 남성 대상자로부터 경험 진술을 풍부하고 구체적으로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이다. 후속 연구로는 첫째, 페미니즘이나 푸코(Foucault)의 권력론에 입각하여 남성 보호사로부터 억제를 체험한 여성 정신질환자의 경험 연구를 제언하며 둘째, 수십 회 이상 신체적 제재나 격리를 경험한 만성 정신질환자의 억제 경험의 적용에 대한 과정을 탐색하는 근거이론 연구를 제언한다.

##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억제 적용 경험을 통한 몸의 현상학과 체화 개념을 파악하였다. 대상자는 억제된 몸과 관련된 시공간 상황을 특유의 표현으로 생생히 언급하였고, 답답함과 무서움에서 차분함과 편안함까지 부정과 긍정의 양가감정을 경험하면서 몸의 억제가 마음의 억제로 유도되어 복잡한 생각들이 압축되어 정리된다고 인지하게 되는 체화 과정을 경험하였다. 즉, 정신질환자의 몸은 단지 억제를 경험하는 상황 속 침묵의 존재가 아니라 그가 속한 세계의 일부로서 특유의 언어와 감정으로 지각하는 체화된 주체(embodied subject)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정신과 간호사는 환자의 견지에서 억제 경험을 이해할 수 있으며, 억제 경험을 통해 마음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정신질환자의 몸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늘 환자 가까이서 돌봄을 제공하는 정신과 간호사는 억제를 적용한 정신질환자를 위한 간호를 계획할 때 자신의 억제된 몸에 대해 반응하고 표현하는 정신질환자의 내재된 느낌이나 생각을 함께 연결 지어 참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Benner, P., & Wrubel, J. (1989). A phenomenological view of stress and coping. In *The primacy of caring: Stress and coping in health and illness* (pp. 57-103). Menlo Park, CA: Addison-Wesley.
- Colaizzi, J. (2005). Seclusion & restraint: A historical perspective.

- Journal of Psychosocial Nursing and Mental Health Services*, 43, 31-37.
- Frank, A. W. (1995). When bodies need voices. In *The wounded storyteller: Body, illness, and ethics* (pp. 1-25).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Johnson, M. E. (1998). Being restrained: A study of power and powerlessness.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19, 191-206.
- Jung, C. H. (2011). *The restraint experience of psychiatric pati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Jung, I. W., Hyun, M. H., Kim, J. Y., Bae, J. N., Chang, H. S., Na, D. S., et al. (2008). *A report on the actual condition investigation of mental health institutions* (A Project Report of the NHRCK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Seoul: DongKuk University.
- Ko, H. S., & Hah, Y. S. (2012). Types of physical restraint experience in mentally ill persons: Q methodological approa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1, 30-40.
- Kong, B. H. (2010). Phenomenology of body in the intensive care unit and narrative. *Eastern and Western Thought*, 8, 185-200.
- Kontio, R., Joffe, G., Putkonen, H., Kuosmanen, L., Hane, K., Holli, M., & Valimaki, M. (2012). Seclusion and restraint in psychiatry: Patients' experiences and practical suggestions on how to improve practices and use alternatives. *Perspectives in Psychiatric Care*, 48, 16-24.
- Kontio, R., Valimaki, M., Putkonen, H., Kuosmanen, L., Scott, A., & Joffe, G. (2010). Patient restriction: Are there ethical alternatives to seclusion and restraint? *Nursing Ethics*, 17, 65-76.
- Lee, C., & Lee, Y. H. (1981). The use of seclusion room in psychiatric inpatients.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20, 126-130.
- Lee, C. T., & Choi, S. H. (1982). Clinical use of physical restraints in psychiatric ward.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21, 151-157.
- Lee, S. I., Park, K. C., & Shin, J. H. (1991). The use of seclusion room in a milieu therapeutic psychiatric ward.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0, 312-321.
- Merleau-Ponty, M. (1962). *Phenomenology of perception*. (C. Smith Trans.). NY: Routledge & Kegan Paul.
- Nam, K. A. (2002). *The seclusion experience of psychiatric pati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Wilde, M. H. (1999). Why embodiment now? *Advances in Nursing Science*, 22, 25-38.
- Yoo, J. M. (2011). *Knowledge and attitudes about the use of the restraints in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